



너릿재 옛길 벚꽃 활짝

식목일인 5일 광주시 동구 선교동 '너릿재 옛길'을 찾은 시민들이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화창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사행성 오락실·비호 경찰 '철퇴'

### 광주지검 단속, 올 57명 무더기 적발

### 경찰 5명 등 22명 구속...작년의 10배

당국의 지속적인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광주지역 사행성 오락실 업주와 비리 경찰 등이 무더기로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오락실 실질 업주 19명과 경찰관 5명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모(42)씨 등 업주 1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김모(50) 경정 등 비리 경찰관 5명, 오락실 브로커 1명 등 22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오락실 관련 사범 구속 건수(2명)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적발 건수도 1년 새 70% 가량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오락실 업주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변조된 청소년 게임기로 단속망을 피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김씨의 경우 당초 게임장과 무관한 '대타형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가 영업을 옮긴 뒤 종업원 관리와 환경업무를 맡겨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최모(43)씨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동생 친구인 서모씨를 실제 업주로 내세웠으나 통장거래내역 조사 등을 통해 달미가 잡혔다.

변조된 청소년 게임기로 공개 영업을 해오던 업주도 구속됐다. 서모(43)씨는 북구 용봉동에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청소년 게임제 공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월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 업주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해 돈을 뜯어낸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업소를 비호하거나 단속 정보를 흘려준 김 경정 등 비리 경

찰관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경찰관 3명은 실형이 언도된 채 1명은 집행유예부 징역형, 나머지 1명은 최근 구속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오락실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업소를 보호해준 대가로 1인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년 새 같은 곳에서 두 차례 이상 단속된 업소가 262곳에 이를 만큼 업주들의 범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사행성 오락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임대해주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종업원을 역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교통 온실가스 배출 전국 최저

광주시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2007년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별·교통수단별로 조사·발표한 결과,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200만4천734tCO<sub>2</sub>(O<sub>2</sub>환산톤, 이하 t)로 전국 배출량의 2%를 차지했다.

이들 수송수단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99만4천343t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 9천168t, 해운 833t, 항공 390t 등의 순이었다.

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활동이 저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시는 216만2천102t(2.1%), 울산시는 616만3천969t(6.1%)을 배출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 약수터 5곳

### 살균 시설 설치

광주시가 약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에도 살균시설을 설치한다.

6월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동구 화산, 남구 대각사, 광산구 산정·용진산·신봉정 약수터 등 하루 1천200여 명이 이용하는 자치구 관리 약수터 5곳에 살균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억 3천만 원을 들여 무등산 약수터 10곳에 광촉매를 설치해 하절기 수질 부적합의 주요 원인인 대장균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왔으며, 이 같은 약수터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자치구까지 확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3분 해질 18시 58분 달돋이 15시 34분 달질 04시 02분

**햇살로 여는 월요일**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9°C
목포	맑음	5/17°C
여수	맑음	8/19°C
완도	맑음	6/18°C
구례	맑음	2/21°C
해남	맑음	2/17°C
장흥	맑음	2/19°C
고흥	맑음	3/21°C
순천	맑음	6/21°C
영광	맑음	3/15°C
진도	맑음	3/17°C
전주	맑음	3/18°C
남원	맑음	1/20°C
옥산도	맑음	6/14°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서	0.5~1.0m	목포 11:59	04:4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서	0.5~1.5m	여수 06:57	00:30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6/21	7/21	7/22	7/23	8/23	9/22

### 광주과기원·도교대 대기오염 공동 관측

### 서해안 상공 황사 등

광주과학기술원이 일본 도쿄(東京)대와 함께 20일까지 한·일 공동으로 서해안 상공의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항공 관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 항공 관측은 중국 등 아시아 대륙에서 한일 양국으로 날아오는 황사, 미세먼지, 탄소입자 등 오염물질(대기 에어로졸)과 대기를 관측하고 양국 주요 지점에서 지상 측정도 동시에 수행되

고 있다.

이번 관측은 기존의 2~3km 상공으로 제한됐던 기존의 항공 관측과 달리 6km 상공에서 실시된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 관측기술 선진화와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구축, 황사에 대한 연구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정광학원 교장 해임 '미적'

### 교장측 인사 징계위 포함 의혹... 전교조 "검찰 고발"

교사채용 비리로 비난을 받아온 정광학원이 교장 2명의 해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 한번 광주 교육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광학원은 지난달 9일 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 요구된 이사장과 이사, 정보 정광고 교장, 형모 정광중 교장(당시 정광고 교감) 등 4명의 징계 결과를 오는 9일까지 시 교육청에 최종 보고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9일 인사채용 비리를 확인해 이들 4명을 해임하고, 부당 합격한 교원 6명도 합격 취소로 복병인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학원은 지난 달 이사장과 이사를 사임 또는 해임조치 했

으나, 교장 두 명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미루고 있다. 오히려 형모 당시 정광고 교감은 정광중 교장으로 승진까지 한 상태다.

이 학원은 징계위원회 구성도 미뤄오다 시 교육청 최종 보고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4일 오후 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쳤다.

하지만,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교장 측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 교육청의 해임 요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는 이사회 교유 권한으로 교육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정광중·고분회 관계자는 "징계위원 중 일부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정광학원이 징계 요구를 묵살할 경우 재정보조금 중단, 학급 감축, 각종 지원사업 중단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 등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광학원의 인사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 2월 2009년도 교원채용(16명) 과정에서 6명의 순위를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이 여행사**

문의: 234-3222

북경 3박4일 (OZ) 349,000

북경 4박5일 (OZ) 399,000

6인 단박 대만여행

대만/파리/아류(온천)4일 899,000

대만/파리/아류(온천)+101빌딩4일 97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여행

88,000

4/3 4/9 5/5, 5/14 5/21 5/28

항공+선박 138,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4일

(실수) 299,000 (아마나미물나무폰도)

(정화) 379,000 (전통프칸, 특급호텔)

제주항공 초특가

큐슈온천여행3일 585,000

4박5일 605,000

다다라기 온천+호텔 3일 655,000

4일 725,000

오사카 비리비리에서 핫부까지 한번에 775,000

목·해·공 일 다 누리라(카멜리아+항공)

큐슈 온천여행 4일 715,000